

## <지난주 말씀>

▶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고 붙잡은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피가 나에게 발라진 증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런 절대불가능한 인생에게 절대가능한 비밀이 실상과 증거로 발라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아들을 보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서론>

▶ 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보증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온 분입니다. 인간이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따라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 꼴을 보니 못 들어가겠어, 그 때 예수의 피의 보증서를 가지고 담대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네가 무슨 꼴로 들어가냐, 물어봤을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의 보증서가 있다, 이 담력을 가지고 굴하지 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 예수의 피, 새로운 살 길은 어떤 살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재창조의 길, 보좌로 나아가는 보좌의 길입니다. 이걸 보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길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피의 비밀이 없다면 또 소잡고 양잡고 짐승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피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 증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시대를 움직였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한번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 <본론>

### 1. 믿음은 무엇인가?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11:1-2)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구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구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실체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붙잡을 때 안 보이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3:15의 여자의 후손의 실상이 되는 증거입니다. 창6:14에 모든 멸망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는 방주의 증거, 출3:18 애굽에서 노예된 인생이 출애굽하는 증거, 사6:13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 마16:16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신 증거, 이 증거를 실상으로 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히11:4)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실상과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 과실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곡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기 의도, 자기 생각대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짐승의 피는 그림자였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피는 실상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 하나님은 이 피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가인은 피의 예물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피의 비밀이 없다면 이렇게 사탄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11:5)

에녹의 믿음은 피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죽음을 맞보지 않고도 하늘로 옮겨지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보지 않고 하늘로 간 자가 에녹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오직 피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체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밀은 피의 비밀입니다. 이 예수의 피의 비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피의 실상과 증거를 붙잡을 때 오는 상은 구원입니다.

### 2. 믿음으로

▶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히11:7)

이게 노아가 붙잡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피의 비밀의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붙잡힌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예수의 피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믿고 있는가?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봐 주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금까지 지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최고 갑부가 된 것입니다. 세계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히11:8-9)**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네가 불러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후손을 주셨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히11:10)**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았고 하나님을 이루실 성이 예루살렘 성이요 세계복음화할 성임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머리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히11:11)**

사라의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는데 믿음을 통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히11:12)**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 3.다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히11:13)**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때로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지만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히11:14)**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히11:15)**

반드시 인간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밀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실상과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11:16)**

외국인은 육신적으로 자기의 나라가 있고 나그네는 육신적으로 자기 집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인생은 전부 나그네 인생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성,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본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히11:17)**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피의 비밀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외국인,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지만 본향에 갈 수 있는 비밀은 오직 피의 비밀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도, 이방인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과 증거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약속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이든 본향에 돌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히11:18)**

아브라함은 이미 너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11:19)**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아들을 드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실상과 증거에 대한 믿음이었습니 다. 내가 비록 독자 아들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 《결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실상과 증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실상과 증거로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증인들이 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망대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당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